

2020 국별 진출전략

아르헨티나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정권교체 가능성 고조	4
나. 역외 국가 및 경제블록과의 통상강화를 위한 FTA 적극 추진	4
다. 기간 산업 분야 투자유치 노력 지속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6
가. 정치 환경	6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8
라. 정책·규제 환경	9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1
나. 교역	12
다. 투자진출	16
라. 프로젝트	18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0
가. 교역	20
나. 투자	21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2
III. 진출전략	24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4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5
3.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4. 진출 시 유의사항	33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5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7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9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0
부 록	
對아르헨티나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1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정권교체 시기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어 경기하락 추세 감소 예상

- 2020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대선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이 다소 완화되어 현 상황 보다는 안정을 되찾아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한 경기의 소폭 성장 가능성 있음
- － 현 정권의 재집권 실패 확률이 높아지면서, 2019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프로젝트나 사업이 잠정중단 상태로 들어섰고, 이에 따라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아르헨티나 투자가 감소
- － 현 정권의 재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아르헨티나가 정치적 안정을 찾으면 이후 업체들의 동향이 확실해질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42.6	43.1	43.5	43.9	44.4	44.8	45.2
명목 GDP	십억 달러	566.8	644.9	557.2	642.5	519.7	434.0	403.8
1인당 명목GDP	달러	13,209	14,895	12,772	14,588	11,667	10,604	11,313
실질성장률	%	-2.5	2.7	-2.1	2.7	-2.5	-2.9	-0.5
실업률	%	7.3	6.5	8.5	8.4	9.2	9.7	10.1
소비자물가상승률	%	38.0	26.9	41.0	24.8	47.6	52.6	36.2
재정수지(GDP대비)	%	-2.7	-4.7	-5.8	-5.9	-5.0	-3.7	-4.9
총수출	백만 달러	68,441	56,809	57,960	58,639	61,638	67,680	70,820
(對韓 수출)	"	501	698	832	612	406	423	n/a
총수입	"	57,594	53,544	64,101	62,101	62,505	50,843	46,743
(對韓 수입)	"	753	1,047	796	836	536	225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5,542	-785	4,416	-5,462	-867	16,836	24,077
경상수지	"	-9,179	-17,622	-15,105	-31,598	-27,479	-6,632	2,568
환율(연평균)	ARS/US\$	8.08	9.23	14.76	16.56	28.09	50.23	77.29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1,921	875	1,787	1,155	1,911	n/a	n/a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5,065	11,759	3,260	11,857	12,161	n/a	n/a

주: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2019 대한(對韓) 수출입은 7월 기준

자료: IMF(2019년 9월), EIU(2019년 9월), UNCTAD(2019년 9월), K-STAT(2019년 9월)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대·내외 요인에 의한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정권교체 가능성 대두
- 현 마크리 정부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 지속 유지 및 친(親)시장주의 정책기조 유지

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정권교체 가능성 고조



2019년 아르헨티나 경제, 2018년 이어 지속 하락세 유지

- 2015년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현 마크리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권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경기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보조금 삭감 등 긴축 재정정책과 외환위기로 야기된 3高 현상(인플레이션, 금리, 환율)은 경기 침체로 이어져 정치적, 사회적 긴장감 고조됨
- 오랜 기간 누적된 재정적자는 경기 악순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보다 재분배에 집중해온 정부 정책으로 재정적자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늘어남
 -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현 정부 정책은 물가상승 및 외환위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둔화를 유발하게 됨



정권교체 시 예상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변화

- 분배정책을 우선시한 크리스티나 정권과 달리 친시장, 친기업 성향의 현 마크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상역량 강화 및 외환시장규제 완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함
 - 그러나 정권교체 시 이전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 존재
 - * 수출세 강화(무역적자, 물가상승), 외환시장규제 강화, 재정적자 확대, 사전수입승인제도 부활 등
- 정권 교체에 대한 현지의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기에 2020년 전망은 불가하며,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던 그에 대한 대비 필요

나. 역외 국가 및 경제블록과의 통상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증가

- 2019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유럽자유 무역연합(EFTA)과도 FTA 체결에 합의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요 회원국이며, 유럽연합과(EU)의 FTA가 체결된 후 일사천리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체결 합의
-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각국에서 비준을 통해야 공식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2020년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 현재 태평양동맹(PA), 한국, 캐나다, 일본,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과 협상 추진

다. 기간 산업 분야 투자유치 노력 지속

오일가스, 인프라, 전력 등 기간산업 분야 투자유치 노력 지속

- 오일가스, 도로·철도·상하수도·항만 등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분야 중심으로 해외 민간 자본 투자 유치 노력 경주
- 아르헨티나 무역투자진흥공사(AAIC)는 파이낸싱, 엔지니어링, 사업개발 및 운영 등 분야에서 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희망 프로젝트 발표(2018.9)
 - * 오일가스(1,750억 달러) : Vaca Muerta 지역 셰일 가스 및 오일 개발 등
 - * 인프라(450억 달러) :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항만, 관개 등
 - * 전력(350억 달러) : 신재생에너지, 수력, 화력, 전력그리드 등
 - * 광산업(300억 달러) : 리튬, 금, 은 등 광물 개발
 - * 기타(170억 달러) : 농수산업, 무선통신, 부동산개발, 관광 등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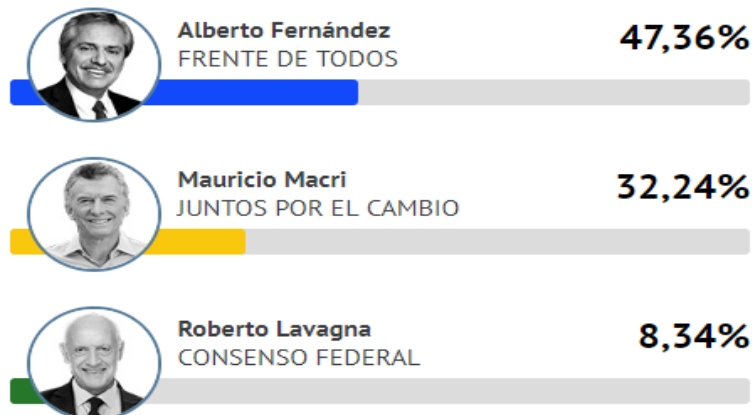
- 2019년 예비선거 결과로 차기 정권교체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 변동성 심화
- 2020년 경기침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대선 이슈 해소로 경기 소폭 회복 예상

가. 정치 환경

2019년 대선 예비선거 집권당 대패, 현 정권(친기업, 친시장 성향)의 재집권 가능성 불투명

- 2019년 10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8월 11일(일요일)에 예비선거가 진행됨
 - 예비선거 투표율은 75.78%로 2015년 예비선거 투표율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
- 동 예비선거는 키르히네리즘(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 연합) 대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 양강 구도로 진행이 되었고, 키르히네리즘 후보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47.37%를 득표하며 1위에 오름
 -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2위를 차지하였으나 득표율이 32.23%로 1위와의 차이가 15% 포인트 격차로 크게 벌어지며 완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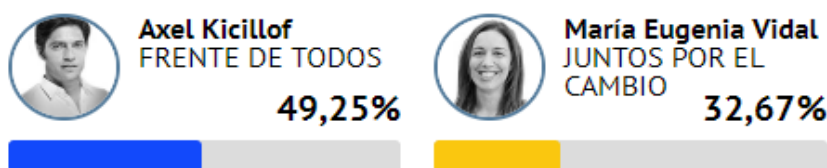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결과



자료 : El Perfil(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 2019년 8월)

- 특히, 예비선거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수도)와 코르도바를 제외한 모든 주요 도시에서 페르난데스 후보에게 패배하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음
-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 선거에서도 현 정부 여당소속 비달이 키실로프에 패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마저도 정권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기대와 달리 뜻밖의 키실로프의 압승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차기 정부의 정권교체 확률이 높아졌음을 시사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



자료 : El Perfil(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 2019년 8월)

나. 경제 환경

현 정권 집권기간 동안 진행된 긴축 재정·통화정책, 외환시장 불안정, 높은 금리 및 인플레이션으로 2020년도 경기 침체 지속 전망

- 2019년 9월말 현재 연초 대비 폐소가치 30% 하락, 연간 50%로 예상되는 인플레이 및 60%를 상회하는 기준금리 등으로 동년 경제성장률 -2.9%, 2020년 -0.5% 전망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5	-2.9	-0.5	2.9	1.9	2.1

자료 : EIU(2019년 9월)

예비선거 결과에 따른 경기 변동성 심화

- 친기업 및 시장개방 정책을 펼쳤던 마크리 대통령에 비해 야당은 재 분배정책, 포퓰리즘 성향이 뚜렷하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로 경기 변동성이 심화됨
 - 예비선거 직후 폐소화 가치가 30% 하락하고, 아르헨티나의 종합주가지수인 Merval지수는 38% 하락하는 등 경기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심화됨
 -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다수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잠정 중단했고, IMF차관이 연기되며 더욱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2019년 대선결과에 따라 2020년 경제정책 계획 변동 가능**

- 현 정부는 실사구시 개방형 통상정책으로 수출 저변 확대 및 투자 유치 도모
 - 현 정부가 재집권 시 2020년 수출 진흥 정책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GDP의 0.4%)달성 계획 및 국가 기간산업 분야 투자 지속
 - 차기 정부 정권 교체 시 인프라, 전력 등 기간산업 분야 투자 유치 노력 지속여부 미지수
-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긴축 재정·통화정책 지속 시행
 - 2019년 IMF 차관에 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균형예산(재정적자 0%)을 목표로 대대적인 재정긴축정책 시행하였으며, 재정적자를 GDP의 0.5%*까지 축소함
 - * 2018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2.3%

다. 산업 환경**자동차(부품) 산업**

- 2019년도에 이어 2020년에도 자동차 산업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 부품(특히 After Market)의 수요는 보합 혹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완성차의 경우 약 75%가 수입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에 있어 수입 의존도가 높음
- 마크리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정책으로 중국 및 한국 자동차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
 - 현대·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에 따라 한국산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2018년 한국산 차량 판매대수는 현대 2,750대(시장점유율 0.4%), 기아 2,823대로(시장점유율 0.4%) 총 5,573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 아르헨티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6년 4월에 발의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혁법 27191에 의거 아르헨티나에서 소비하는 총 전력에너지 중 2018년까지 8%, 2025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목표로 설정을 하며 RenovAr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기획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RenovAr 1부터 RenovAr 3까지 실행되었으며, 총 전력 에너지 중 12%(약 4,991Mw)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완료
- 현재까지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에는 풍력에너지 및 태양광에너지가 가장 비중이 높음

**건축기자재 산업**

-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CEC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건설업계의 시장규모는 약 8.3% 축소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매월 축소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선 직후 가장 빠르게 반등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임

- 올해 아르헨티나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거나 품목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는 품목도 존재
 - 또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경제 불황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고 있으며, 특정 품목(PVC 창틀, 내외장재 PVC 바닥재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

의료기기 산업

-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제3의 의료기기 시장으로, 의료기기 수입규모는 2017년 기준 10.71억 달러 기록, 2020년까지 13억 달러 규모로 확대 될 전망
 - 아르헨티나의 노령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성 질병 증가, 발달된 헬스케어 시스템, 의료 부문 투자 확대, 의료 관광 증가 등의 호조요인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전망됨
- 수입 비중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80%에 달하며, 특히, 미국, 독일, 벨기에 등 주요 선진국의 의료기기 제품이 시장을 선점
 - 현지 제조업체는 의료용 소모품 위주로 생산 중이며, 높은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들은 자체 보유기술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 미국, 독일과 같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의료기기 생산국 대비 낮은 제품 가격으로 인지도는 매년 상승 중

K-Culture 관련 소비재 산업

- 최근 아르헨티나의 한국문화 품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추세를 보임
 - 아르헨티나 및 중남미 전체의 트렌드 중 하나로 K-Culture에*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현지인들의 수요에 따라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한국제품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진 산업 중 하나
 - * 한국문화원(Centro Cultural Coreano)등을 통해 K-pop, K-Movie, K-Food, K-Beauty 등 한국 문화가 빠른 속도로 현지에 확산 중
- 일반소비재는 2019년 7월 기준 아르헨티나 총 수입액의 약 13% 차지하며, 매해 조금씩 증가
 - 현지 경기 상황이 악화되며 수입량은 감소 추세이나,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4대 소비시장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높은 품목 중 하나임

라. 정책·규제 환경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시행

- 2015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입 관리 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시행
 -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 기존 무차별적인 수입규제 대신,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ática)를 시행하며, SIMI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약 1,200개 HS Code가 LNA 대상이며, 해당 제품은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수입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함
 - * LNA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모터 등에 집중
 - LNA 품목이 아닌 경우는 SIMI 신청 후 약 48~72시간 안에 보통 승인이 나며, LNA 규제 품목인 경우 수입승인이 최대 60일까지 소요(근무일 기준)
 - SIMI 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제품은 180일간의 통관기간이 주어짐
- HS Code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의 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 대상 품목으로 분류

전자무역시스템 본격 가동

- 수출입 비용과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입 절차 조치가 2018년부터 가동되기 시작
 - 대외무역 일원화 창구인 상글원도우(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를 통해 수출입에 관한 모든 수속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과학기술 품목 수입 간소화

- 법령(Decreto) 515/2019를 통해 동년 7월부터 과학기술연구 관련 품목에 대해 수입절차를 간소화 및 관세 인하를 시행
 - 동 법령은 과학기술 기구 및 업체 리스트(Registro de Organismos y Entidades Científicas y Tecnológicas)에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에 한해 해당됨
 - 3,000 달러, 무게 50kg 이하 수입품의 경우 특별한 수입절차 없이 제품 수입 가능
 - 또한, 정식 수입이 진행될 때에도 30개 이상의 서류 등록 필요 없으며, 중고기기 수입 시에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2019년 9월부터 외환규제 도입

- 예비선거 이후 급격하게 불안정해진 외환시장의 영향으로 2019년 12월 말까지 정부는 외환규제를 도입
 - 현지기업은 일반 금융투자 목적으로 달러 구입이 불가하며, 외화 구입 및 외국 송금의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
 - 동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특별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단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정책이지만 이후 정부가 규제를 더 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반발

2 시장 분석

- 중남미 3위의 경제대국으로 개발 잠재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 보유
- 마크리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성과는 미미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중남미 내 경제규모 3위, 인구 4위 시장

- 2019년 아르헨티나 GDP는 4,770억 달러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3위의 경제대국
 - 인구는 약 4,400만 명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이어 중남미 4대 소비시장

중남미 주요국가 GDP 비교

(단위 : 십억 달러)

연번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브라질	2,053	1,868	1,960	2,062
2	멕시코	1,158	1,223	1,242	1,298
3	아르헨티나	642	518	477	515
4	콜롬비아	311	333	336	352
5	칠레	277	298	295	313

주 : 2019, 2020년 자료는 전망치

자료 : IMF(2019년 9월)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자원 보유

- 아르헨티나 국토면적은 278만km²로 세계 8위, 이 중 53%가 경작지로 활용 가능
- 에너지, 식량 및 광물자원의 보고
 - 광물자원 보유량 세계 6위, 국토 75% 미개발 상태로 향후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음(매장량 : 셰일가스 2위, 셰일오일 4위, 리튬 3위)
 -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은 부진
 - 농축축 산업은 아르헨티나 GDP 비중의 6% 수준이나, 농축산물 및 가공품 수출이 아르헨티나 총수출의 70% 상회
 - * 농축산물(30%) : 대두, 밀, 옥수수
 - * 농축산 가공품(40%) : 동물사료, 유지 및 식물성 오일

**경공업 위주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한계로 수출 경쟁력 상실**

-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중간재 산업인 중화학 산업 육성 없이 경공업 위주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추진
 - 아르헨티나 수입 중 자본재 및 그 부품 등 중간재 비중은 69% 차지
 - * 정부의 강력한 수입규제로 최종재 수입은 13%에 그쳤으며, 연료 10%, 자동차 8%로 구성
- 자본재 수입 관세 하향 조정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생산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상실로 대외 수출 확대에 어려움

**노동시장의 경직성**

- 전통적인 강성노조 및 근로자 중심의 현지 노동법(근로계약법)은 아르헨티나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 경직된 노동법으로 한번 고용하면 해고는 어려우며, 노조 분쟁 발생 시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여 근로자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

나. 교역**교역 동향**

- 아르헨티나 수출입은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수입규제 정책으로 2012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다 2016년부터 조금씩 반등하여 증가하기 시작
 - 2015년 말 정권교체 이후 현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무역환경이 개선됨
- 대외개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내외적인 악재로 교역량은 축소됨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및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교역 감소, 대내적으로는 높은 생산비용과 설비시설 투자 미비로 수출 경쟁력 상실 등에 기인
 - 2018년부터 외환위기 등 급격한 페소가치 하락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
 - 수출의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수출품이 국제가격에 영향을 받는 1차 산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액 증감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아르헨티나 최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68,407 (-10)	56,788 (-17)	57,879 (2)	58,384 (1)	52,820 (-9.5)	36,608 (3.3)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65,736 (-12)	60,203 (-8)	55,910 (-5)	66,899 (20)	39,130 (-41)	30,068 (-26.8)
무역수지	3,178	-2,968	2,123	-8,515	13,690	6,540

주 : 2019년 자료는 6월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아르헨티나 국립 통계청(INDEC, 2019년 9월)

수출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인 브라질, 미국, 중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32%를 차지

아르헨티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17년		국가	2018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브라질	9,307	2.97	브라질	11,291	21.32	18.34
2	미국	4,430	0.06	중국	4,211	-2.64	6.84
3	중국	4,324	-2.45	미국	4,182	-5.6	6.79
4	칠레	2,620	13.64	칠레	3,037	15.87	4.93
5	베트남	2,271	-10.78	베트남	2,101	-7.51	3.41
6	인도	2,080	-5.53	알제리	1,723	17.13	2.8
7	스페인	1,502	-8.74	네덜란드	1,702	22.31	2.76
8	알제리	1,471	26.45	인도	1,600	-23.09	2.6
9	네덜란드	1,391	17.65	스페인	1,588	5.69	2.58
10	캐나다	1,331	16.05	캐나다	1,294	-2.85	2.1
.	.	.	.	.	.	.	.
.	.	.	.	.	.	.	.
.	.	.	.	.	.	.	.
34	한국	506	-41.54	한국	292	-42.42	0.47
전체		전체	0.87	전체	61,559	5.44	100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 아르헨티나 5대 수출 품목은 1차 상품 위주이며, 옥수수, 밀, 대두 및 대두 가공품이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
- 2018년 기준, 5대 수출 품목 중 유일한 공산품은 5톤 이하의 자동차이며, 최대 수출국은 브라질 (수출 비중 6%)

2018 아르헨티나 5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FOB)

순위	HS코드	품목명	금액
1	23040010	대두유 가공품(pellets, 밀가루)	9,189
2	10059010	옥수수	4,193
3	87042190	상용 자동차(5톤 이하)	3,829
4	15071000	대두유	2,891
5	10019900	밀, 호밀	2,482

자료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2019년 9월)



수입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수출교역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중국,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54%를 점유함

아르헨티나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17년		국가	2018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브라질	18,140	31.02	브라질	15,573	-14.15	23.8
2	중국	9,454	14.86	중국	12,072	27.7	18.45
3	미국	9,376	13.51	미국	7,658	-18.32	11.7
4	독일	2,968	5.71	독일	3,350	12.87	5.12
5	벨기에	1,790	15.5	파라과이	2,175	98.67	3.32
6	멕시코	1,740	15.79	멕시코	1,877	7.9	2.87
7	홍콩	1,633	55.69	이탈리아	1,558	2.41	2.38
8	이탈리아	1,521	20.5	볼리비아	1,442	14.86	2.2
9	스페인	1,463	43.96	스페인	1,431	-2.21	2.19
10	볼리비아	1,255	43.37	태국	1,328	23.88	2.03
.	.	.	.	.	.	.	.
.	.	.	.	.	.	.	.
.	.	.	.	.	.	.	.
16	한국	816	-0.96	한국	643	-21.3	0.98
전체		66,899	19.65	전체	65,441	-2.18	100

자료 : GTA (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승용차), 석유, 천연 가스 등이며, 2018년도에는 대두 씨앗이 2위를 차지

아르헨티나 5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CIF)

순위	HS코드	품목명	금액
1	87032310	자동차(1,500cm ³ ~3,000cm ³)	2,975
2	12019000	대두 씨앗	2,503
3	27101921	가스 오일	1,831
4	87032210	자동차(1,000cm ³ ~1,500cm ³)	1,692
5	27112100	천연 가스	1,408

자료 : 아르헨티나 국립 통계청(INDEC, 2019년 9월)

수입규제

○ 현황 요약

- 2019년 9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대한(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임
- 품목별로는 화학 1건, 플라스틱/고무 1건, 전기전자 1건 임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디옥틸 프탈레이트 (DOP; Deoctyl Phthalate)	2917.35.00	반덤핑	'17.4.5	〈최종〉 '18.10.4	화학	- '17.4.4 : 반덤핑 조사개시 - 대상국가 : 중국, 멕시코, 한국 * 덤핑마진율 : 한국 28.57%, 중국 30%, 멕시코 56.73% - '17.8.1 : 반덤핑 예비판정 - '17.10.26 : 반덤핑 예비판정에도 불과, 잠정 관세 부과 없이 조사 계속 진행할 것으로 통보 - '18.10.4 : 반덤핑 최종 판정 - 반덤핑관세(6.73%) 확정.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 '18.10.4 ~ '23.10.4
삼상 유입 변압기 (단락용량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 것)	8504.23.00	반덤핑	'13.1.3	〈최종〉 '14.7.2	전기전자	- '13.1.3 : 반덤핑 조사개시 - '13.5.23 :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 : 178%, 중국 : 139% - '14.7. : 반덤핑 최종판정 * 반덤핑 관세 : 한국(52%), 중국(54%) - '15.1.16 : 반덤핑 규제 적용 연장 * 최종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를 이유로 '17. 7.17 일까지 적용 유보함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 '17.7.17~'19.7.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00	반덤핑	'12.4.25	〈최종〉 '13.10.24 〈재조사〉 '17.9.28	플라스틱 /고무	- '12.4.25 : 반덤핑 조사개시 - '13.10.24 : 반덤핑 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 17.6% * '16.3.29 :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실시 * '17.9.28 : 재조사 결과 발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8% → 17.61%)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 '13.10.24~'18.10.24 * 현재 일몰조사 착수, 조사기간에 반덤핑 관세 부과

자료 : 아르헨티나 무역 위원회 CNCE(Comisió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2019년 9월)

수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지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여전

○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시행

- 2015년 12월 22일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전격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전격 시행함
 -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승인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세계 유일무이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유명하며 일본, 미국 및 EU의 WTO 제소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도록 강요받았고, 12월 22일 신정부에 의해 폐지됨
 -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 SIMI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며, DJAI와 같이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 (AFIP)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DJAI와 달리 신청절차가 매우 단순한 것이 특징
- 기존 무차별적인 수입규제 대신,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를 시행하며, SIMI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약 1,500개 HS 코드가 LNA 대상이며,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치고, 수입 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함
 - * LNA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제화, 제지, 농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카펫,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유리제품, 모터, 가구 등에 집중
 - LNA 품목인 아닌 경우는 SIMI 신청 후 약 48~72시간 안에 보통 승인이 나며, LNA 규제 품목인 경우 수입승인은 최대 60일까지 소요(근무일 기준)
 - SIMI 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제품은 180일간의 통관기간이 주어짐
 -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가(FOB 단가 7% 이상 및 이하, 수량 7% 이상 차이)
- (문제점) HS 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에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 또한,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로 수입제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투자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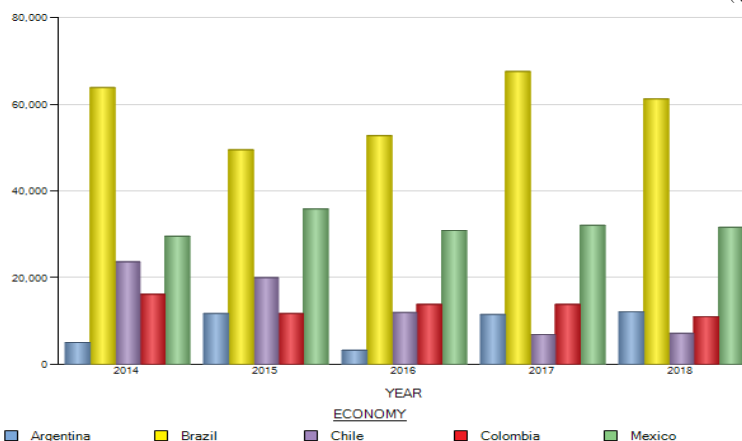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기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FDI 유입이 많은 나라
- 현 마크리 대통령 취임 이후 2016년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약 3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2017, 2018년에는 각 115억 달러, 121억 달러에 달함

중남미 주요국 FDI 유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브라질	63,846	49,514	52,751	67,583	61,223
2	멕시코	29,591	35,863	30,865	32,091	31,604
3	아르헨티나	5,065	11,759	3,260	11,517	12,162
4	콜롬비아	16,167	11,723	13,850	13,836	11,010
5	칠레	23,671	20,011	11,942	6,856	7,160

주 : 순위는 2018년 기준

자료 : UNCTAD (유엔 무역 개발 회의, 2019년 9월 기준 최신 자료)

아르헨티나 FDI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FDI	2016년	2017년	2018년
FDI 유입	3,260	11,517	12,162
FDI 잔액	74,868	80,700	72,784
FDI 잔액/GDP	13.49	12.66	14.15

자료 : UNCTAD (유엔 무역 개발 회의, 2019년 9월 기준)

- 마크리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 치안, 낙후된 인프라, 숙련된 근로자 부족, 조세압력 등이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됨
 - 마크리 대통령 집권 후, 대(對)아르헨티나 투자는 느리지만 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함
 - 2019년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가 주춤해지는 추세
 - 현 정권의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상승되며, 10월 대선까지는 FDI 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2020년 FDI 유입 규모는 이번 대선결과가 어떻게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환경

- 거대한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서, 투자진출 시 공동시장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수출입 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 또한, 내외국기업 무차별 대우(외국인 투자진출 업종 완전 개방)과 더불어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 중
 - 반면,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페론주의(재분배 우선 정책)에 입각한 친근로자, 친노조 지향적인 법률 제도와 외환 거래 경직성은 현지 법인설립 투자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
- 현 정부는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면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 노조분쟁, 폐소화 절상, 치안문제 등과 같은 외국인 투자에 저해되는 현상들이 외국투자자들에게 우려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좌파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의 정책을 표방하는 페르난데스 후보의 대선 승선 가능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 중

라. 프로젝트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진행 현황

- 아르헨티나 투자청(AAICI)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주된 프로젝트는 1,342건에 달하며, 1,530억 달러 규모로 집계
 - 프로젝트가 진행된 분야 중 63%가 오일 및 가스 분야며, 그 뒤를 이어 광산업 (16%), 통신 기술 (14%), 신재생에너지(11%) 등으로 나타남
 - 2016~2017년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된 반면, 2018년 금융시장위기 이후로 프로젝트가 잠정중단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됨

아르헨티나 세부 프로젝트

- 아르헨티나 항만 프로젝트

해외발주처	Ministerio de Transporte / 아르헨티나 교통부		
재원조달	아르헨티나 정부 및 투자유치	규모(백만 달러)	1,910
프로젝트 상세정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은 아르헨티나 전체 물류의 60%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항구이나 오래된 설계구조 및 노후화된 인프라로 현대화 프로젝트가 절실한 상황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항 현대화 사업 (Plan de Modernización del Puerto de Buenos Aires)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욱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최신식항구를 보유하길 희망 2030년까지 19.1억 달러를 민관합작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140만 TEU, 2030년까지 270만 TEU 수준의 물동량을 운영할 계획 부에노스아이레스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항만의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 것이며 3개의 터미널 개보수를 포함		

추진현황 및 계획	부에노스아이레스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관련 입찰은 2019년 5월 9일 아르헨티나 교통부의 결의안에 따라 입찰사양 및 조건 등이 승인되며 본격적으로 구체화 됨 기존 2019년 8월로 예정되었던 입찰제안서 제출 및 공개일이 12월 2일 (오전 11시)로 미뤄짐 항만 관련 프로젝트 입찰 관련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puertobuenosaires.gov.ar/llamados/82)
--------------	--

○ 기관차 정비소 설립 PPP

해외발주처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민간합작투자부/ Subsecretaria de Participacion Publica Privada		
재원조달	아르헨티나 정부, 국내외 민간기업 합작투자유치	규모(백만 달러)	80
프로젝트 상세정보	동 프로젝트는 Mendoza 주 Palmira 시에서 진행되며, 아르헨티나 철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 (Palmira시에 신규 기관차 정비소를 설립할 예정)		
추진현황 및 계획	Mendoza 주 Palmira 시에 건설된 65,000m2 규모의 신규 기관차 정비소는 총 60대의 기관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정비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한 공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동 프로젝트의 경우 2019.11월 낙찰자 선정, 동년 12월말 계약 예정		

○ RenovAr 4.0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공개입찰

해외발주처	Secretaria de Energia /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재원조달	아르헨티나 정부	규모(백만 달러)	2,000
프로젝트 상세정보	RenovAr 4.0은 총 1,000Mw의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및 1,000Km 송배전 라인을 아르헨티나 북부지역, 남부지역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구축할 프로젝트이고, 1,000Mw 중 750Mw는 풍력 플랜트 입찰 예정이며, 나머지는 태양광으로 예정		
추진현황 및 계획	2016년 시작된 RenovAr 사업은 2025년까지 아르헨티나 전력 수요의 20%(약 10GW)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로 시행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개입찰이 진행되어 147개 프로젝트(4,466.5MW 규모)가 선정 RenovAr 3.0의 경우 2019년 11월 입찰 공고, 2020년 4월 낙찰자 선정 예정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한-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 전년도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 달러로, 양국 교역은 2012년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 하였으나 2014년 급감 후 2018년 최저 규모로 하락
 - 2018년 급격한 폐소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대한(對韓) 수입 감소 및 가뭄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교역량 최저
 - 그러나 2019년 수출량 증가로 교역량 증가 추세 전환

대한(對韓) 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수출	1,075	754	1,047	796	836	536	225
수입	1,195	501	699	833	612	406	423
한국 흑자 규모	-120	253	348	-37	224	130	-198
교역 총액	2,270	1,255	1,746	1,629	1,448	942	648

자료 : KITA(2019년 9월)

- 우리나라는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부품, 자동차/부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사료, 식물성 유지, 은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와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최종재보다 아르헨티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재(자본재), 혹은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기술집약적 제품 위주로 수출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 및 광물 등의 1차 상품에 국한

2018년 대한(對韓) 아르헨티나 주요 교역 품목(MTI 4단위 기준)

수출품목	금액(천 달러)	비중(%)	수입품목	금액(천 달러)	비중(%)
평판디스플레이	60,492	11.28	사료	188,564	46.45
자동차부품	56,358	10.51	은	53,064	13.07
승용차	45,111	8.41	기타 정밀화학 원료	39,228	9.66
합성수지	40,521	7.56	기타 어류	35,874	8.84
무선통신기기부품	23,893	4.46	새우아연광	19,830	4.88
도금강판	22,381	4.17	식물성유지	16,317	4.02
건설 중장비	16,971	3.16	천연섬유원료	7,883	1.94
반도체 제조용 장비	13,505	2.52	오징어	7,246	1.78

화물자동차	13,490	2.52	곡류	6,763	1.67
석유화학 합성원료	10,184	1.90	의약품	6,415	1.58
소 계	302,906	56.48	소 계	381,184	93.90
전 체	531,312	100	전 체	405,948	100

자료 : KITA(2019년 9월)

나. 투자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대(對)아르헨티나 투자진출 미미
 - － (투자현황) 신고 건수 173건, 금액 600백만 달러 (2019년 9월 기준)
 - － (비중)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3%로 미미한 수준
 - *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은 178,440백만 달러임(2019.9월 기준)

대(對)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법인구분	항목	연도별 총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지법인	신고건수	154	2	4	5	2
	신규법인 수	58	0	2	2	1
	신고금액	871,614	377	893	399,380	15,882
	송금횟수	383	1	5	5	2
	투자금액	597,571	177	1,093	398,039	15,882
지점	신고건수	9	2	0	0	0
	신규법인 수	3	0	0	0	0
	신고금액	3,105	505	0	0	0
	송금횟수	13	1	0	0	0
	투자금액	1,375	5	0	0	0
지사	신고건수	10	0	0	0	0
	신규법인 수	4	0	0	0	0
	신고금액	1,930	0	0	0	0
	송금횟수	4	0	0	0	0
	투자금액	1,909	0	0	0	0

주 : 연도별 총 합계는 1980~2019년 9월까지 누적 합산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한국기업의 대(對)아르헨티나 업종별/법인별 투자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6	21	54,955	88	29,434
광업	37	12	552,277	217	403,053
제조업	41	19	96,029	48	14,837
건설업	3	1	4,400	16	1,805
도매 및 소매업	17	6	164,543	20	149,0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1	200	1	2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882	1	88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4	3,342	9	1,641
기타	1	0	22	0	0
합계	173	65	876,650	400	600,85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2019년 9월)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기업 현황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기업 현황

구분	진출업체	진출년도	비고
전자	삼성전자	1996	전자제품
	LG전자	1986	전자제품
의료기기	세라젠	2007	온열치료기
서비스업	한국선금	2007	등록선박 검사, 신규 등록 유치, 해운관련 정부 업무 연락
	판토스	2016	물류
	제일기획	2018	광고
광업	포스코	2015	리튬
수산업	한성기업	1985	원양산업
건설업	현대건설	2017	건설
	포스코건설	2019	건설
무역업	포스코인터네셔널	2017	무역업(곡물 위주)

자료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2019년 9월)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

- 메르코수르의 중심축인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대외정책방향 선회로 역외 국가 및 경제블록과 활발한 무역협상 진행 중

-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 선언(2018.6) 및 현재 3차 협상까지 진행완료
 - * 3차 협상은 2019.7.8~12까지 우루과이에서 진행됨
- 한-메 TA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나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대선 결과에 따라 2020년 체결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
 - ** 아르헨티나는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우루과이는 결선투표 진행 예정 (2019.11기준)

한-아르헨티나 정부 간 협정 및 양자 대화채널 추진

- 현재 교섭중인 정부 간 협정
 - 사회보장 협정(문안합의), 워킹홀리데이 협정(문안합의), 이종과세방지 협정(협의중)

의료기기·의약품 시장 진입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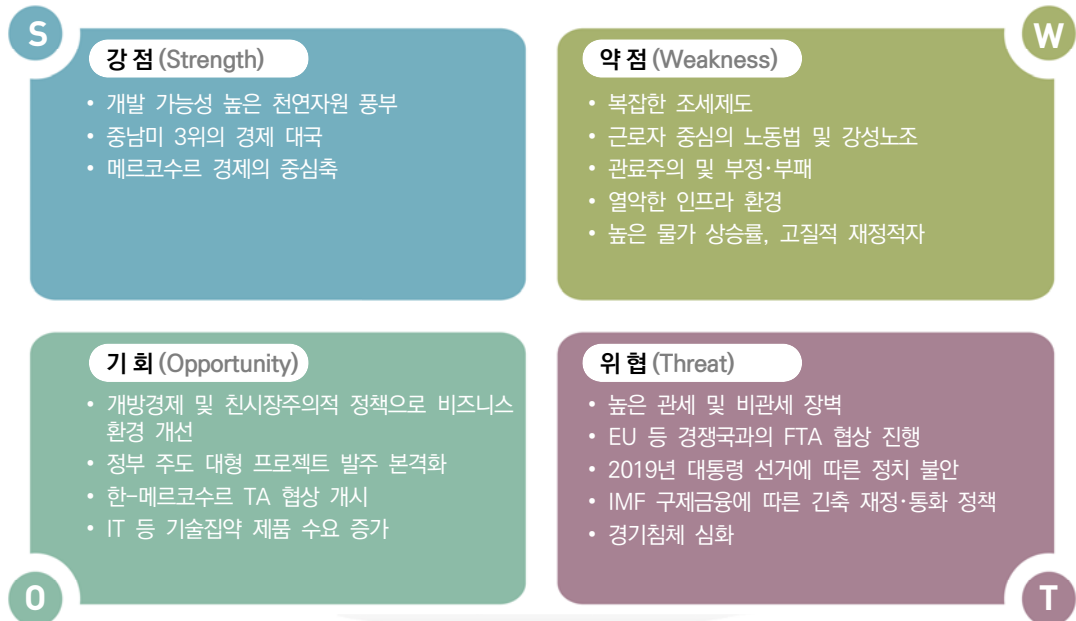
- 한국 의료장비·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까다로운 제품등록 절차로 인해 시장진출 애로 다대
 - 아르헨티나는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위생고경계국(High Vigilance Country)으로 분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등록이 비교적 용이
 - 반면, 한국과 같이 상기 위생고경계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식품의약청(ANMAT)의 해외공장 심사(GMP)를 통한 안전성 인증 혹은 위생고경계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
 - * 의약품이 의료기기 등록 절차 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
- 한국을 위생고경계국으로 분류, 간이 인증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약 체결 필요

Ⅲ. 진출전략

- 기술 집약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 높은 수입 관세 극복 방안 마련 → 남미공동시장 활용방안 도출
-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등 정부 프로젝트 입찰 참여 증대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아르헨티나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현 정부의 개방 및 친기업 정책 기조를 활용해 기술 집약,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공략	기술 집약 품목 위주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 메르코수르 동맹국에 법인 및 공장을 설립해 관세 인하 절감 효과 활용	메르코수르 동맹국 활용
WO 전략 (기회 포착)	• SOC 인프라 구축, 셰일가스·오일 개발, 신재생 에너지원 확충 프로젝트 참여 확대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참여
WT 전략 (위협 대응)	• 범정부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인 교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관세 인하 등)을 통한 교역 활성화	한-아르헨티나 무역협정 체결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중간재·자본재	○ 현지 생산이 부족한 자본재·중간재 위주 유망상품 발굴 및 시장 공략
자동차 부품	○ 수입규제가 약한 부품 위주 시장 진입 ○ 현지 자동차 부품 업체와 조인트벤처 방식의 진출
건축자재	○ 수입품 위주의 품목으로 진출 노력 필요 ○ 건설기자재 전시회 참가 및 전략적, 공격적인 마케팅 방안 모색
의료장비	○ 유럽 선진국 판매 확대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미국 및 유럽에서 개최되는 의료장비 전시회 적극 참가
K-Beauty 화장품	○ 가격 경쟁이 아닌 특유의 패키징 및 기능성으로 시장 접근 ○ 경험 많은 현지 에이전트를 적극 발굴해 협업하는 구조로 접근

2-1. 중간재·자본재 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
 - * 아르헨티나 산업생산은 GDP의 23%, 전체 고용의 12% 차지
 - * 주요 산업 분야는 식품가공,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정유, 바이오디젤, 화학, 제약, 철강 및 알루미늄, 농기계, 가전제품
- 경기악화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분야지만 2020년 하반기에 반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2020년 정부 투자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르헨티나 정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본재 위주로 수입관세 인하
 - 현지 생산이 없는 자본재 수입관세 기존 14%에서 2%로 인하
- 아르헨티나에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나 기술력 부족으로 자본재 및 중간재는 수입에 의존
 - 2019년 아르헨티나 경기 상황 악화로 생산량 감소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 기저효과로 인해 반등할 가능성 높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생산이 부족한 자본재·중간재 위주 진출 노력 강화
 - 관련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및 전시회 참가
 - 자동차 부품, 전력, 건설, 식품가공, 석유화학 산업 분야 위주 기자재 및 중간재 수입이 확대 될 전망

2-2. 아르헨티나 건축자재 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국가총생산의 4~5%가량을 차지하며 5대 산업 중 하나로, 약 44만 명의 인구가 건설업에 직접적으로 종사
- 2019년 대선 직후 타 산업 분야보다 빠르게 반등 예상
- 건축자재 중 수입품 수요 꾸준한 상승 및 국내기업의 인지도가 높아 유력한 시장으로 판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건설업계는 2019년 10월 대통령 선거 결선 이후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먼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급격한 폐소화 가치의 하락으로 건설비용은 전년 대비 33%가량 떨어져 정치, 경제 상황이 안정을 이루는 시기에 건설업계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기준 1㎡ 건설비용은 약 820달러로 추산되며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1,188달러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
- 건축자재 중 PVC 창틀, 내외장재 PVC 바닥재 등은 대부분 수입으로 조달 되고 있고, 수입품은 경기 불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수요 존재
- 또한, 건축자재 관련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아르헨티나 시장의 특성상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품목도 존재하므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 위주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 예 : 외장재, 바닥재, 지붕재, 창호재, 단열재, 방열/방청/방수 코팅제 등 신기술의 접목된 품목
- 건축자재 관련 아르헨티나의 최대거래국은 브라질, 미국, 중국이며, 브라질의 경우 Mercosur 회원국으로서 무관세 혜택과 지리적 이점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낮은 단가를 필두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재고를 헐값에 처리하는 중국업체가 많아지고 있어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심화되는 중
- 타 국가의 제품보다 월등한 품질을 내세울 수 있는 국내 신소재 건축자재 또는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건축자재 전시회(BATIMAT 또는 BATEV+FEMATEC)에 참가하거나 해당분야 무역사절단 행사를 통해 제품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3. 의료기기 시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시장은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2020년까지 연평균 6.6%의 성장 예상
- *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시장
- 현재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시장은 미국 및 유럽 선진국 제품의 각축장이나 한국 의료기기 인지도 상승 중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8년 기준 중남미 지역 전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6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큰 3대 시장임
- 현지 생산 업체는 274개이며, 다국적 기업 지사 및 수입업체는 총 655개

- 2018년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수입규모 8.39억 달러
 - 2018년 외환위기로 인해 2010~2017년 연평균 6.6%에 달하던 수입액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지속적인 회복세로 2020년 9억 달러 돌파 예상
- 이전 정부의 수입 대체정책으로 저가 사양(Low-tech)의 의료장비 및 소모품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이 크게 늘어나 2018년 5,700만 달러 수출 중
 - 마크리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정책으로 저가시장에서 중국 및 브라질 제품 수입이 크게 확대됨
 - 최첨단 기술(High-Tech)이 필요한 제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미국 및 유럽산 장비의 수요가 높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선 미국 및 EU(선진국 시장) 진출 후, 아르헨티나 진출’ 전략 필수
 - 고위생경계국(High Vigilance Country)에 속하지 않은 한국은 이들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자율판매증서’가 반드시 필요
 - * 아르헨티나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를 고위생경계국으로 분류하고, 상기 해당 국가의 식약청에서는 매우 엄격한 규격으로 자국 내 생산 및 판매되는 의료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간주
 - * 고위생경계국이 아닌 국가의 제품은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위해 고위생경계국의 보건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보증(자율판매인증서) 받아야 아르헨티나 식약청에 생산, 판매, 수입을 위한 인증 신청가능
- 인지도 높은 의료기기 전시회 및 학술대회 적극 참가
 - 중남미 바이어는 미국 및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학술대회 참가하여 공급처를 모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계에서 인지도 높은 전시회 및 장비 분야별 학술대회 참가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기회 확보 필요

2-4. K-Culture 관련 소비재 시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 문화 및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대
 - * k-culture 인플루언서를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상승
-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중국제품의 수요가 높지만 퀄리티 높은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와 관심도 증대
 - * 가격대비 좋은 제품의 질로 아르헨티나 시장에 충분히 매력적
 - * 일반적인 품목보다는 패키징이나 기능성이 추가된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K-Culture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증대 추세

- 아르헨티나 및 중남미 전체의 K-Culture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문화원 (Centro Cultural Coreano)등을 통해 K-pop, K-Movie, K-Food, K-Beauty 등 빠른 속도로 확산 중
- o 기존에 가격이 소비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나, 최근 수요자의 관심이 가격보다는 높은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한국 제품 수요가 증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o K-Culture 관련 아르헨티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화장품 시장을 공략
 - K-Beauty가 점점 아르헨티나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색조화장보다는 스킨케어 제품, 마스크팩 등이 인기몰이 중
 - 일반 시트 마스크팩은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 패키징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특이한(고무, 버블 마스크팩 등) 품목이 현지시장 진입에 더 유망할 것으로 판단
- o 아르헨티나에서 화장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업체가 식약처에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제품 등록이 진행 가능함
 - 의약품보다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만 현지 업체가 경험이 없을 경우 수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업체를 발굴해 협력함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샘플 수령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로 무역사절단이나 일반 출장을 통해 가져온 샘플을 직접 만나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

2-5. 자동차 부품 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o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시장은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크며 2017년 기준 아르헨티나 내 차량 대수는 총 13.3백만 대로 집계
- o 아르헨티나 자동차 메이커별 점유율 중 한국산 시장 점유율 1~2%이며, 주로 유럽, 미국산 비중이 높은 편임
- o 최근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이 중요시되나,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여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o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은 아르헨티나의 총 공업생산량의 9%, GDP의 2.5% 그리고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
 -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현지에서 생산되는 부품은 정부의 산업 보호를 받고 있음

* Dayco(Drive Systems), Denso(Radiator, Condenser), Die Tech(Metal Parts), Fric Rot(Shock Absorbers, Suspension Parts), Master Trim(Panel, Seat), SKF(Shock Absorbers), ZF Sachs(Suspension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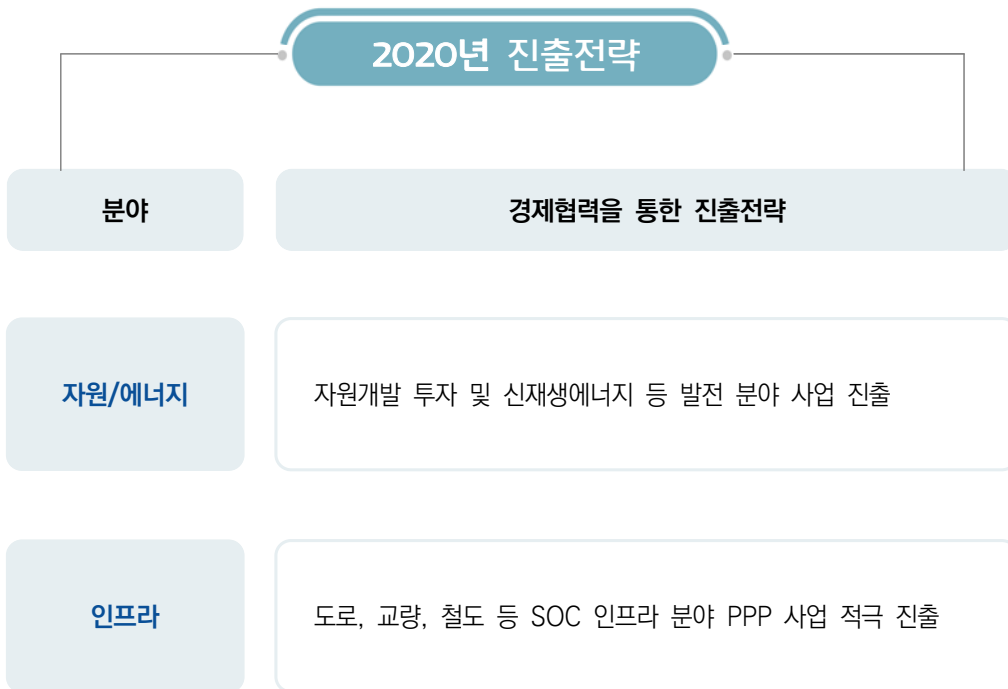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완성차의 경우 약 75%가 수입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에 있어 수입 의존도가 높음
 - － 아르헨티나의 기술수준이 완성차 산업을 뒷받침 할 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않아서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은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마크리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정책으로 중국 및 한국 자동차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
 - － 현대·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에 따라 한국산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2018년 한국산 차량에 판매 수는 다음과 같음 : HYUNDAI 2,750대(시장점유율 0.4%), KIA 2,823대(시장점유율 0.4%)로 총 5,573대
- 아르헨티나 화폐가치 하락으로 저가 제품의 선호도가 급상승 중이나, 고가 차량의 소유자들은 중고가 부품을 선호하여 유럽 제품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큼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규격인증 등 산업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부품 위주로 진출
 - － Brake Disk, Clutch, 플라스틱 부품, 타이어, 휠 등의 부품은 특별한 인증 없이 수입 가능함
-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조인트벤처형 진출 방안 모색
 - － 강력한 수입제한 정책(80% 이상이 수입허가제 품목으로 지정)하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부품 생산기업들과 JV 형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
 - * 공동으로 부품모델 개발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
 - *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여 생산 공정 중 일부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함으로써 수입규제 우회
- 아르헨티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전시회 활용
 - － 아르헨티나에서는 격년제로 자동차 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개최
 - * Automechanika 전시회는 18개국 400개 기업 참가, 평균 3만 명 방문 규모
 - － 전시회 참가를 통해 현지 유통 딜러, 자동차 생산 기업 구매 담당자들과 상담

3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자원개발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분야 사업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세일가스·오일 최대 매장지(세일가스 세계 2위, 세일오일 세계 4위)인 Vaca Muerta 지역에 대한 주요 석유회사들의 투자 확대

- 아르헨티나 정부 2030년까지 원유·가스 수출국으로의 전환 정책 추진
 - Vaca Muerta 지역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확대, 제도 정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 건설 추진
 - Vaca Muerta 지역의 세일가스·오일 시추비용이 크게 감소(미국에서의 시추비용에 근접)
-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5년까지 20%까지 확대 추진
 - 2016~2017년 2년간 총 9,400MW 규모의 전력 PPA 입찰 시행(화력 4,948MW, 신재생 4,466MW)
 - 2019년까지 RenovAr(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1~3단계 까지 진행되었으며, 20% 생산 중 12%를 대체한 상황임



세일가스·오일, 리튬 등 광물 자원 조사 등 전략적인 진출방안 모색 필요

-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Hombre Muerto 리튬 염호 인수(2018.8) 및 2019년 중 연간 2,500톤 규모의 시범 리튬 가공 공장 건설 예정
- 세일가스·오일 개발, 정유 및 LNG 시설 확장 투자 등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공사 및 다국적 석유 기업들의 투자계획 조사 및 협력방안 적극 모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관련 다양한 추진방안 검토

- 단독 또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정부의 전력구매(PPA) 입찰 참여 또는 대규모 전력 수요자(배전사, 공장 등)와 직접 공급계약 체결

3-2. 도로, 교량, 철도 등 SOC 인프라 분야 PPP 사업 적극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마크리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PPP법 제정(2017년) 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이나, 고속도로, 철도, 송전망 건설 등 국가 경쟁력 및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인프라 사업은 PPP 형태로 지속 추진 예정



경쟁력 있는 파이낸싱 조달 능력이 PPP 사업 진출의 관건

-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부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또는 외국기업이 개발자금을 전액 조달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국 기업의 경우 파이낸싱 조달 능력이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 아국 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해외사업 금융 및 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도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진출전략 구사 필요
- 현재 아르헨티나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현대건설이 PPP 사업 진출 검토 중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일방적인 구매계약 취소
■ (현황) - 바이어 A사에서 이미 완공한 광케이블 설치공사 건이 정권 교체(2015/여당 → 야당)와 맞물려 약 3년간 계약된 공사 대금을 정부에서 받지 못해 국내기업 M사에게 약 200.000 달러 대금결제를 진행하지 못함 ■ (대응전략) ☞ 정부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 시 정권교체 시기 및 발주처, 구매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 후 진행 ☞ 정부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 정권교체 시기에 따라 대금 입금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무역보험공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비하는 방향이 필요	■ (현황) - 아르헨티나의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탓하며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2019년 대통령 예비선거 이전 PI 결제까지 이뤄졌던 바이어가 선거 결과 발표 이후 발생한 달러 폭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구매계약 무기한 보류 (실질적 취소) ■ (대응전략) ☞ 아르헨티나의 바이어들은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당장의 상황이 실망스럽더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추후 거래 가능한 시점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경제제재 리스크	수입자 재무제표 이슈
■ (현황) - 현지 외환규제의 일환으로 외국으로 송금 시 중앙은행에서 서류심사 후 송금을 허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송금 허가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가 증가, 서류 심사기간의 지체 등으로 수입 업체 측 계좌에서는 대금이 지불되나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에 지불되는 기간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 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수입 시 선금 송금일자 기준 90일 안으로 아르헨티나 항구에 제품이 도착 및 통관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기준이 생겨남 ■ (대응전략) ☞ 바이어가 수입신고 또는 인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수입승인 받기 전까지 임의적으로 업무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 ☞ 기존 거래처의 경우 물품선적 또는 출항한 뒤 선금을 받는 경우가 증가, 현지 업체와의 첫 거래의 경우 바이어 신뢰도 및 재정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현황) - 재무제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재무제표를 공개하더라도 폐소화로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환율,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 커 신뢰도가 높지 않음 ■ (대응전략)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현지 관행	무역장벽 강화 리스크
■ (현황) - 대다수의 현지 통신대기업 구매부서에서 신규 공급업체 등록 및 입찰 낙찰을 위해 개인적인 커미션을 받고 있음. 기존 사용하던 제품보다 고사양 제품을 저가로 제시해도 결국 이러한 관행 때문에 커미션을 납부한 해외 업체가 주로 입찰 성공 ■ (대응전략) ☞ 증빙이 되지 않는 커미션 납부보다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대기업 내부) 인맥을 활용하여 진출 시도 ☞ 한국의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주기 위해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대하여 공장 확인 및 친분을 쌓게 함	■ (현황) - 시장주의 및 자유무역을 선호했던 마크리 전 대통령과 반대로 2019년 새롭게 선출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자국 생산 기업들을 장려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함.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명분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수입허가 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대응전략) ☞ 완제품 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지 생산 기업과 협력하여 부품 수입 → 현지 조립 방식으로 아르헨티나 진출 도모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472.90.10	수입관세율(%)	16
	수입액('18/US\$백만)	58.9	대한수입액('18/US\$백만)	0.2
금융자동화 기기	선정사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에서 제조되는 지폐방출기, 체크스캐너, 카드리더기 등 금융자동화 모듈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제품에 인지도 또한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음		
	시장동향	은행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서 ATM기기가 사용될 수 있어짐에 따라 ATM 기기 내부에 들어가는 모듈에 대한 수요가 급증		
	경쟁동향	NCR, Nixdorf, Fujitsu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대형기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 외에 중국기업의 제품도 수입되고 있으나 아직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진출방안	기존 동종품목을 취급해 본 경험과 현지 은행 등 관련입찰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바이어와 거래 국내제품의 높은 가성비와 A/S 등을 앞세운 전략		
품목명 2	HS Code	8701.00	수입관세율(%)	14
	수입액('18/US\$백만)	529	대한수입액('18/US\$백만)	0.1
트랙터	선정사유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유럽연합(EU) FTA 체결로 인해 앞으로 농축산물 장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아르헨티나에 쇠고기, 닭, 돼지고기의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축산업 장비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		
	경쟁동향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공장을 세워 중·대형 트랙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소형 트랙터의 경우 아시아산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농축산업용 장비 유통 경험이 많은 바이어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야채, 과수, 포도, 등 소형 농축 장비가 자주 사용되는 지역에 유통 노하우가 많은 현지 에이전트와 거래하는 것을 추천		
품목명 3	HS Code	3921.90	수입관세율(%)	16
	수입액('18/US\$백만)	42	대한수입액('18/US\$백만)	1
광고용 PVC 필름	선정사유	광고용 PVC 필름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며, 전량 수입이며, 최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여 기존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던 바이어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공급처를 찾고 있는 상황		
	시장동향	현재 아르헨티나에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 중 중국 및 브라질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미국, 독일 및 한국 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 제품의 질은 다소 낮으나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중 브라질 제품의 경우 품질 면에서 중국산 보다 우수하고, 가격 면에서도 Mercosur (남미공동시장) 회원이기에 수입관세 면제로 경쟁력을 갖고 있음 미국, 독일 및 한국 제품 경우 최상의 품질의 제품만 수입되고 있으며, 점차 소비자들의 제품의 질적 요구가 높아지며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		

	경쟁동향	중국, 브라질, 독일, 미국 및 한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제품들의 공급처들은 다음과 같음. 중국 : Ultraflex 브라질 : Arteccla / Cipaflex 독일 : Linnemann 미국 : Lamtec 한국 : Starflex		
	진출방안	최근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가격적인 접근보다는 고품질의 사양으로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필요		
품목명 4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14
의료기기 (진단 장비)	수입액('16/US\$백만)	29	대한수입액('16/US\$백만)	6
	선정사유	기술력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최근 몇 년간 한국 의료장비 수요가 늘어났고, 기술 및 품질경쟁 가능		
	시장동향	현재 수입 80%, 현지생산 20% 정도의 점유율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미국, 유럽(독일,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제조된 장비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 브라질 등의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		
	진출방안	한국의료장비의 인지도가 상승 중이지만,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등록을 위해서는 CE(혹은 FDA) 인증과 미국 및 EU(프랑스, 독일) 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자율판매증서'가 필요, 즉, 유럽 혹은 미국에서 딜러나 지사를 통한 사전 판매 이력이 필요		
품목명 5	HS Code	3304.00	수입관세율(%)	18
화장품	수입액('17/US\$백만)	148	대한수입액('17/US\$백만)	0.7
	선정사유	K-Beauty가 현지에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고 특히 한국산 마스크팩이 최근 각광받고 있으며, cosmetic shop, 쇼핑, 약국, 여성 액세서리 shop 등 전국에 유통		
	시장동향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에 비해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 주름, 주근깨, 피부암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여러 캠페인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점차 관리를 하게 되면서 관련 제품 수요 증가 추세 2016년부터 SNS 및 한류를 통해 K-beauty 또한 알려지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		
	경쟁동향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무관세) 제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국, 프랑스, 스페인, 중국 제품이 수입되고 있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어 OEM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함		
	진출방안	식약청(ANMAT)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신규 수입 업체를 찾기보다는 이미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를 활용한다면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코딩로봇	선정사유	유아, 초등, 중등과정 교육에서 코딩교육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국가적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교육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됨
	시장동향	아르헨티나 정부는 유아기부터 프로그래밍, 코딩, 로봇교육 등을 배울 수 있도록 'Aprender'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고, 로봇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장난감 시장에서도 프로그래밍용 로봇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
	경쟁동향	중국산 저가제품
	진출방안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거나 부품교환이 쉬운 제품 필요하고, 아르헨티나 문화에 맞는 캐릭터, 디자인 등이 접목된 상품 필요
품목명 2		
증강현실 (Argumented Reality)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관광부에서는 아르헨티나 주요 관광 장소에 증강현실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중
	시장동향	아르헨티나는 증강현실 프로그램 개발 초기 단계로 이미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경쟁동향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스타트업 기업 다수 존재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관광부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이어들과 협력해 진출 하는 것을 추천함
품목명 3		
하이패스 시스템	선정사유	아르헨티나에 하이패스 시스템처럼 'TELEPASE'라는 톨게이트 시스템이 존재하나, 감지 반응 속도가 느리기에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사료됨
	시장동향	현재 아르헨티나 톨게이트에는 TELEPAS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TELEPASE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 및 지정된 장소 및 날짜에 차량에 칩을 설치하러 직접 가야하고, 또한, TELEPASE를 부착했다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순간 센서가 칩을 감지하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비효율적으로 증가하게 됨
	경쟁동향	아르헨티나 전국에 사용되고 있는 톨게이트 시스템은 TELEPASE가 유일함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도로교통국의 등록 바이어들과 협력하여 교통체증 감소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하이패스 시스템 진출 방안 모색
품목명 4		
IoT 기반 서비스 (스마트 홈/ 홈 시큐리티)	선정사유	아르헨티나의 Io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증가
	시장동향	Qualcomm 및 IDC 컨설팅 보고 자료에 의하면 중남미는 전 세계 IoT 시장의 약 1.57%를 차지함 아시아, 유럽 및 미국은 4차 산업에 큰 투자하는 반면, 중남미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투자 기회가 많을 거라고 예상됨 Machina Research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2014~2024년까지 IoT 산업 투자는 매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oT 연결 수는 현 14.6백만에서 160백만으로 증가할 추세. 또한, 불안한 경기로 인해 치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 홈 시큐리티 관련 IoT 제품의 수요가 증가

	경쟁동향	현지 업체들의 IoT 제품의 투자가 증가 추세 * 아르헨티나 업체인 DATCO 사의 경우 2018년에 IoT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천만 달러 투자 * YEAP 사도 2018년에 약 3천만 달러를 투자 유럽계열 업체들과 협력하는 기업이 증가
	진출방안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스페인어로 조작이 가능하여 현지인들의 사용에 불편함 없도록 개발 필요함
품목명 5		
콘텐츠 (애니메이션)	선정사유	14세 미만 아동이 1,100만 명(2019년 인구조사 자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무엇보다 TV시청 시간이 일평균 5시간으로 미국, 유럽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국산 애니메이션 “뿌까”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보로로’등 다른 작품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장동향	갈수록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아동이 처음 접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특히, 인터넷 및 기술 발달로 인해 한 가정에서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수 기기를 통해 시청함
	경쟁동향	현지 제작이 없어 주로 미국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며, 아직도 90년대 작품이 다수 방영되기도 함
	진출방안	적합한 방송국, 더빙 제작사 등을 섭외하기 위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 발굴이 필요함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아르헨티나 수입 증가품목 타겟 수출상담회	· 의료기기/장비 수출상담회	상반기/ 부에노스아이레스
2		·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연계 수출 상담회	상반기/ 부에노스아이레스
3		· K-뷰티 수출상담회	상반기/ 우루과이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예산안 국회 송부	2020.9.15.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섬유 박람회 (Emitex, Simatex and Confemaq)	2020.4.21 ~ 23	전시회
기계 및 기술 박람회 (Feria Internacional de la Máquina Herramienta y Tecnologías para la Producción)	2020.5.12 ~ 16	전시회
의약품 박람회 (Expofarmacia)	2020.5.31 ~ 6.2	전시회
석유 및 가스 산업 콘퍼런스 (Congreso de Integridad y corrosion en la industria del petroleo y del gas)	2020.6.2 ~ 4	콘퍼런스
건축박람회 (BATEV+FEMATEC)	2020.6.24 ~ 27	전시회
목재 및 기술 박람회 (FITECMA)	2020.7.2 ~ 6	전시회
냉난방 전시회 (Expo Frio Calor Argentina)	2020.8.26 ~ 28	전시회
에너지 효율 전시회 (Expo Eficiencia Energetica Buenos Aires)	2020.8.26 ~ 28	전시회
안전 박람회 (Intersec)	2020.8.26 ~ 28	전시회
자동차 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Buenos Aires)	2020.11.4 ~ 7	전시회

I. 한-아르헨티나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아르헨티나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아르헨티나의 잠재력

- 중남미 주요국가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위 경제대국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요 회원국으로 남미 시장의 진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함
 -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회원국과의 수출입 시 부담되는 관세, 물류비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음
 - *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국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아 부품조달 문제가 있어 회원국 내에서 생산되는 타국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 특히,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입 파트너는 브라질로서 남미 1,2위 시장 공략 가능
- 에너지, 식량 등의 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
 - 광물자원 보유량 세계 6위*,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임
 - 아르헨티나 국토면적 278만 km²로 세계 8위, 이 중 53%가 경작지로 활용 가능하나 국토 75%가 여전히 미개발 상태
 - * 광물자원 매장량 : 셰일가스 2위, 셰일오일 4위, 리튬 3위

 아르헨티나의 주요국 협력 현황

- 멕시코나 브라질에 비해 FDI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자원을 개발 하거나, 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에 주요국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주요국 대(對)아르헨티나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특징 및 진행 상황
중국	○ 중국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중국 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1,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함 - 베네수엘라에 672억 달러, 브라질 289억 달러, 에콰도르 184억 달러, 아르헨티나에는 169억 달러를 투자함 - 중국기업들의 경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입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철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입찰에 공격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기술력보다는 자체 파이낸싱을

	통한 재정적 우위를 선점하여 아르헨티나 발주처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 아르헨티나 도로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 수주, 약 11억 달러 규모로 현재 사업 진행 중(약 4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
일본	○ 아르헨티나 내 약 70~80여 개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자동차, 무역,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 일본기업은 대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광산, 가스, 석유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임 ○ 일본의 미쓰이(Mitsui)사는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즈(Santa Cruz)주에 건설될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지분의 34%를 프랑스 토탈에렌(Total Eren)사로부터 구입하여 전력 프로젝트에 참여함 - 발전소 지분구조 Total Eren 66%, Mitsui 34% -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20년간 아르헨티나 전력도매시장 관리회사인 까메사(CAMMESA)가 구입할 예정임
미국	○ 2018년 12월 G20 정상회담에서 마크리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아르헨티나가 추진할 예정인 6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약속을 받음 ○ 미국의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OPIC)은 아르헨티나에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도로, 가스관 등과 관련된 6개 프로젝트에 대해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미국의 General Electric(GE)사의 경우 아르헨티나 최대 국영에너지 공기업 YPF가 설립한 에너지기업 YPF Luz의 지분 25%를 매입, 아르헨티나 최대 발전 기업으로 키울 예정이었으나 2019년 8월 모든 지분을 중국펀드에 매각함 ○ 급변하는 아르헨티나 상황에 따라 중국과는 달리 소극적인 프로젝트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유럽	○ 아르헨티나는 주로 스페인, 이탈리아계 유럽이민자들로 형성된 국가로서 유럽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와 친밀도가 타 국가 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가 입찰수주자를 선정할 때는 기술력과 건설비용 등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 하므로 유럽 기업과 아르헨티나 기업이 형성한 단기합작투자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음

한-아 경제협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

- 양국의 경제협력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멕시코나 브라질에 비해 FDI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임
 - (투자현황) 신고 건수 173건, 금액 6억 달러(2019년 9월 기준)
 - (비중)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3%로 미미한 수준
 - *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은 1억 7,844만 달러임 (2019년 9월 기준)
- 2018년도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 달러로, 양국 교역은 2012년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 하였으나 2014년 급감 후 2018년 최저 규모로 하락
 - (교역현황) 2018년 급격한 폐소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대한(對韓) 수입 감소 및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출 감소로 교역액 최저치를 기록함
 - (비중) 2018년 기준 양국 교역은 *전체 교역의 약 0.08%로 활발한 교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 한국 전체 교역액은 11,400억 달러임(2019년 9월 기준)

나. 한-아르헨티나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2015년 마크리 정부 집권 후,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투자유치 노력 → 정부 추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 (인프라 구축) 교통 인프라 및 물류라인 증축·재건 프로젝트 추진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8년까지 총 480억 달러(200억 달러의 민간투자 및 280억 달러의 정부, 개발은행의 파이낸싱)의 투자유치를 통해 약 43,000km의 도로 및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건설 및 유지보수 계획 중
 - *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큰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알려짐
 - * 아르헨티나 전국도로 중 약 35%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이는 인근 국가(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의 포장도로 비율에도 미치지 못해 도로개선에 투자가 절실
 - 총 280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통해 화물철도(150억 달러) 및 승객철도(130억 달러) 증축 및 재건을 계획 중
 - 항구, 공항, 지하철 프로젝트에 70억 달러 상당 투자유치 계획 중
 - (연방정부 공공 인프라) 수 처리 및 위생설비 시설 220억 달러, 관개시설 180억 달러, 교육 160억 달러, 보건시설 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에너지 프로젝트) 자원개발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분야 사업진출
 - 셰일가스·오일 최대 매장지(셰일가스 세계 2위, 셰일오일 세계 4위)인 Vaca Muerta 지역에 대한 주요 석유회사들의 투자 확대
 - 아르헨티나 정부 2030년까지 원유가스 수출국으로의 전환 정책 추진
 - * Vaca Muerta 지역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확대, 제도 정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 건설 추진
 - * Vaca Muerta 지역의 셰일가스·오일 시추비용이 크게 감소(미국에서의 시추 비용에 근접)
 -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5년까지 20%까지 확대 추진
 - * 2016~2017년 2년간 총 9,400MW 규모의 전력 PPA 입찰 시행(화력 4,948MW, 신재생 4,466MW)
 - * 2019년까지 RenovAr(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1~3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20% 생산 중 12%를 대체한 상황
- (핵심 지원사항)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부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또는, 외국기업이 개발자금을 전액 조달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경우 파이낸싱 조달 능력이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한국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해외사업 금융 및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기업도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진출전략 구사 필요

민관협력사업(PPP)법

- 투자절차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사업(PPP)법 ('17.2. 승인). 정부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인프라, 주택, 서비스, R&D 분야 등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함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와의 FTA 체결 추진노력 필요

- 아르헨티나는 거대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요 회원국으로, 투자진출 시 공동시장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 (Mercosur 역내 수출입 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 내외국기업 무차별 대우(외국인 투자진출 업종 완전 개방)과 더불어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

수입 관세 및 관련세 내역(한국 등 제3국 기준)

구분		요율	비고
대외세 (A)	관세	품목별 차등	CIF 가격 * 관세율
	통계세	2.5%	CIF 가격 * 통계세율
대내세 (B)	부가세	21%	(CIF + A) * 부가세율
	추가부가세	20%	(CIF + A) * 추가부가세율
	소득세	6%	(CIF + A) * 소득세율
	이득세	2.5%	(CIF + A) * 이득세율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교역량 확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양국·다자 간 FTA체결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우 기존 통상정책에 대해 폐쇄적이던 입장을 친시장, 개방 정책으로 태세전환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체결이 급격하게 진전되어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 등과 FTA 체결에 합의함
 - 우리기업의 경쟁기업이 될 수도 있는 유럽계 국가들이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직·간접적으로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 빠른 정치적 제도 마련은 교역량 확대를 넘어 경쟁 진행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②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이나, 제품 특성으로 인해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시장 진출이 불가한 사례 속출

- 특히 한국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까다로운 제품등록 절차로 인해 시장진출이 어려움
 - 아르헨티나는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등 일부국가를 위생고경계국(High Vigilance Country)으로 분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등록이 비교적 용이함
 - 반면, 한국과 같이 상기 위생고경계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식품의약청(ANMAT)의 해외공장 심사(GMP)를 통한 안전성 인증 혹은 위생고경계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등록 가능
 - * 의약품이 의료기기 등록 절차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며, 이에 따른 로비 문제도 많은 것으로 집계됨
- 한국을 위생고경계국으로 분류, 간이 인증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약 체결 필요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 간소화 제도

- 아르헨티나 보건부령에 의한 부속서(ANEXO) 1, 2군 국가에 등재되는 경우 임상시험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구 분	등재 국가
ANEXO I (부속서 I)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15개국) →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결과 없이 등록 가능, 의약품 등록 신속하게 처리(120일 → 90일)
ANEXO II (부속서 II)	호주, 멕시코, 브라질, 쿠바, 칠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인도(13개국) →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결과 없이 등록가능하나, 원산지 국가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아르헨티나 및 기타국가	한국 포함 기타국가와 아르헨티나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현지에서 임상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함

- 한국은 부속서(Annex)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의약품 등록 간이 절차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문제점) 미국, 일본 등 부속서 등재 국가에서 등록된 의약품은 아르헨티나에서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으며(120일 → 90일), 제출 자료 간소화(현지임상 면제) → 한국은 아직까지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 이러한 간이 절차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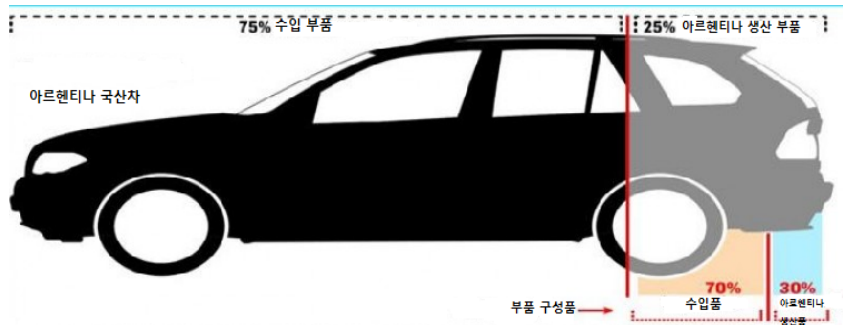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①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협력

After Market을 겨냥한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시장 수출

- (시장수요) 2019년 8월 기준 자동차 부품 수출은 대(對)아르헨티나 수출의 약 15% 차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한 수치임
 - 유일하게 아르헨티나향 한국 수출이 증가한 품목으로,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 (시장 여건)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부품수입 현지조립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제조업 발달이 되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가 아르헨티나에 진출(12개 터미널 존재), 현지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중남미 대국(멕시코, 브라질)에 비해 낮은 수치임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조달 방법



자료 : 현지 주간지 La Nación

- (협력 방안)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조인트벤처형 진출방안 모색 필요함
 - 강력한 수입제한 정책(80% 이상이 수입허가제 품목으로 지정) 하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부품 생산기업들과 JV 형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
 - 반제품 수출, 현지에서 생산 공정 마무리 등의 방법을 통해 완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수입규제를 우회 및 공동 부품 개발 등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② 통신망 구축 협력

아르헨티나 통신망 확충 계획 기반, 한국 협력 가능성 증가

- (정책)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통신연결 계획(Plan de Telecomunicaciones y conectividad)을 실행 중
 -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브라질, 칠레에 이어 LTE 보급률이 높은 국가이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실행 중
 - 동 계획은 LTE 보급률 100%, 인터넷 평균 속도 20 Mbps 달성 등이 목표이며, 무선 통신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LTE 기지국 구축에 힘쓰고 있음
- (한국 역량) 한국은 전통적인 통신강국으로서 관련 서비스 및 활용, 또한 통신장비 제조업 경쟁우위에 위치하여 현지 진입 가능성 높음
 - 특히, 5G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국가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 선점 가능
 -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0~2023년 내에 5G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네트워크 구축 시점부터 한국기업 진출 가능
- (협력 방안) 기술 협력 또는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참여 증진
 - 현지 기업과 협업하여 프로젝트 참가, 일반적인 통신장비 판매가 아닌 주체적으로 사업 진행 필요
 - 아르헨티나의 주요 통신사(Claro, Telefonica Argentina-Movistar-, Telecom Pesonal 등)와 커뮤니케이션 라인 수립이 중요 포인트로 작용 가능성 높음

③ K-Culture 관련 소비재 유통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일반 소비재의 현지 수요가 증가 추세 유지

- (한국역량) K-pop을 제외하고도 일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로, 한국 영화, 드라마, 화장품, 음식 등이 아르헨티나에서 시장성을 갖기 시작하며 관련 상품 시장경쟁력 상승세를 나타냄
 - 아르헨티나에서 일명 '프리키(Freaky, 비주류)'들의 전유물이었던 한국 문화 소비재들이 일반화되며 인기 상승 추세 유지 중
 - 특히, 한국 문화(영화, 드라마, K-pop 등)나 음식 관련 수요가 증가, 한국 문화원에서는 2019년도 제1회 한국 음식의 주(Gasto Corea Food Week)를 개최하여 한식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 중

- (시장수요) 아르헨티나 한류 동호회 활동 증가 및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성장으로 일반 소비재 수요 및 유통 증가추세 유지 중
 - 전자상거래 매출액 2019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상품이 7% 증가함
 - 아르헨티나 한류 동호회인 '한류친구(Hallyu Chingu)'는 6기까지 출범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나 문화 확산 방안 등을 연구, 발표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음
- (협력방안) 한국인들과 한류 팬들의 것만이 아닌, 현지화 기반 보편적인 제품 및 문화로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
 - 일반적인 한국제품 인식이 한류 팬들의 것, 한국인들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현지화를 통해 보편적인 품목,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품목 등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함
 - 현지 한국 교포 2세 유튜브(인플루언서)나 한국문화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K-culture 품목들의 실용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더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상생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남

다. [B2G] 프로젝트(인프라, 에너지) 개발 협력 강화

협력수요

- 아르헨티나는 매장되어 있는 자원량에 비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인프라, 에너지 쪽 프로젝트 수주가 높은 편임
 - 하지만 정부의 자금부족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형식 프로젝트가 많으나, 정치적 이슈로 인해 보류 중
 - 2019년도 대선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 2017년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직접적으로 공공 프로젝트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진행될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민관합작투자 (PPP)로 진행할 것으로 발표함
- 마크리 정부는 공공입찰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했고, 페나 수석장관은 프로젝트 건설비용이 전 정권 대비 30~40%가량 감소했다는 내용을 발표

협력방안

- 프로젝트의 특성상 민관합작투자로 진행될 시 자본조달이 어려운 한국기업에게 부담이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책금융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지원 및 접근이 필요함
 - 발주처가 후진국일수록 정책금융 선결 조건이 까다롭고, 신용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는 아르헨티나 진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 일반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부문 프로젝트는 발주처 자체 재원에 의존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르헨티나 현지의 재정능력이 있는 발주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 정부 차원의 대중소 동반진출 제도 확보, 정보제공 활성화 등 역량강화 정책을 통해 우리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아르헨티나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라. [국민] 동반자관계 형성

CSR 활성화

- 아르헨티나 내 국내 주요기업의 CSR활동이 한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진출 시작함
 - KIA의 경우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함께 '한식의 주(Gastro Corea Food Week)' 개최함
 - LG는 한국문화원-Centro Cultural Coreano-의 여러 활동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여러 기업이 한국 문화 관련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을 위한 협회 설립, 보조금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음
 - G2G, B2G 레벨에서 CSR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현지진출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정례화, 단순 나눔/지원의 개념이 아닌 마케팅 수단, 전략적 경영활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 지원 필요

주요 협력 분야별 기회 및 Key Player 요약표

구분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 (한국)	참여주체 (아르헨티나)
			관련기관 (한국)	관련기관 (아르헨티나)
			세부 추진 내용	
[G2G]				
1	양국 FTA 체결 등 통상 제도적 기반 마련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외교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Mercosur FTA 체결 등 정부차원 기반조성 활동	
2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	인증	보건복지부	보건부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2G 레벨의 인증분야 기술협력, 상호인증, 인허가 취득지원 기반조성	
[B2G]				
3	에너지, 인프라 협력 활성화	에너지 인프라	포스코, 현대건설	에너지부
			산업부, KOTRA, 수출입은행, 보험공사	
			양국 정부레벨의 합의 및 MOU 후, 각 B2B, B2G별 PPP개발연계. 양국 경제행사 기획 후 핵심 기업 참여 상담 지원	

구 분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 (한국)	참여주체 (아르헨티나)
			관련기관 (한국)	관련기관 (아르헨티나)
			세부 추진 내용	
4	에너지 분야(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협력 (PPP 연계)	에너지 인프라	기획재정부	에너지부
			KOTRA, 수출입은행	
			에너지 분야 발전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국민]				
6	대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CSR 활동 홍보	CSR	삼성전자, LG, 포스코 등	주정부
			KOTRA	현지 수혜대상 기업, 개인, 지자체
			현지 정부, 유관기관 등 관계자, 현지진출기업, 현지기업, 수혜자 등이 참여하는 CSR 시상식 개최	
7	한류문화 전파 및 확대를 통한 문화교류	기타	외교부	문화부, 아르헨티나 주정부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KOTRA	
			아르헨티나 내 한류 콘텐츠(춤, 노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문화, 음악 강연 및 체험 행사 주최 추진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진성	과장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54-11) 4312-0033	kotrajin@kotra.or.kr
2	김주희	대리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54-11) 4313-0746	juhee@kotra.or.kr

KOTRA자료 20-101

2020 국별 진출전략 아르헨티나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47-7(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